

2025학년도 중등임용_정보컴퓨터_경기도교육청 합격수기

안녕하세요. 늦게 합격수기를 쓰는 것이 스티브 선생님께 죄송할만큼 작년에 스티브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은 수강생입니다. 합격 발표가 나고 정말 살면서 이렇게 바빠본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바쁜 한 두달을 보내고 이제야 정상속도가 되어서 늦은 합격수기를 올립니다.

저는 [24년 여름졸업 + 컴퓨터공학과 복수전공(본전공은 사범대학교 문과계열입니다) + 초수 합격 + 경기도교육청 + 주말에 학원근무로 철저히 평일에만 공부 + 오로지 스티브 선생님 강의/커리큘럼 + 교육학 권지수 개념강의만 수강] 등의 조건이었던 수험생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창 공부했을 때 저와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어디 없나~ 막 찾아보고 그랬던, 꽤 모래주머니를 달았던 수험생입니다.

결과는 [경기도교육청 25등 + 전공 47점+ 교육학 19점]입니다.

공부기간은 24년 2월 설 연휴기간에 스티브 선생님 1년 연간 패키지와 권지수T 기본 개념강의를 끝고부터 진입했고 2차 시험 치루기 전까지 계속 공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컴퓨터공학과에서 들은 전공수업들이 조금은 머리에 있었겠지만, 임용공부와 대학교전공수업의 결은 좀 많이 달라서 학부시절 공부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교육학과와 전공수업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컴퓨터공학과 전공수업과 임용시험은 결이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한 편이라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 작년 계획표상에서 전공능력이 가장 많이 오른 5-6월달이 되기 전에 빠르게 수기 올리고자 합니다.

0.교재

컴퓨터구조: 마노_3판

운영체제: Abraham_공룡책_10판

데이터베이스: 홍의경_데이터베이스 배움터_2012년판, 이석호_데이터베이스 시스템 _2014년판

네트워크: Forouzan_데이터통신과네트워킹_6판

C언어/자료구조/인공지능: 샀는데 한 번도 안봤습니다. 소신발언하자면..안사도 될 거 같습니다.

1. 전공

3-4월: 작년 스케줄러를 보니까 기본강의를 5월6일에 다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수강생들보다 조금 느리게 들었던 거 같은데요. 이해도 못했는데 그냥 패스하거나 설렁설렁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하루에 2-3강의 정도, 평균 2-3시간정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물론 강의만 듣고 그 날의 전공공부가 끝나는 건 아니죠. 강의듣는 시간만 저 정도였다는 겁니다.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동시에 기본서 1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스티브 선생님께서 꾸려 주신 스터디를 통해서 기본서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스터디를 이어갈까 말까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다면 계속 스터디를 하시고, 완벽한 기본서 이해는 지금되는게 말이 안되기 때문에 꼭 참고 1회독이라도 제대로 진행하면 도움이 될겁니다.

이때 기본서 1회독을 어떤 마인드로 진행을 했다면, '정말 그냥 한 번 읽어보자'는 마인드였습니다. 안에 있는 회로나 그림들을 막 분석까지는 안했고,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챗터들을 한 번 읽어보자'였습니다.

5-6월: 저는 이 기간이 정말 중요하고 제 개인 역량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문제풀이1 강의를 5월7일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먼저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루에 25문제씩 풀고 50문제가 쌓이면 강의를 들었습니다. 관련 개념이나 방법이 생각이 안난다면 바로 표시를 해두었고 표시된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1 강의를 들을 때에는 관련된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5-6월은 '개념완벽이해' 마인드로 살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 때 머뭇거리거나 개념이 잘 기억안났기에 표시된 문제에 대해 강의를 들을 때 스티브 선생님께서 언급하시는 1단계: 관련된 개념들을 교재에다가 적어두었고 2단계: 이 내용을 기본서에서도 찾아서 다시 꼼꼼히 읽어보며 개념정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가 안된다면 3단계: '스티브 선생님 개인카톡'과 '3-4월에 들었던 강의'내용을 펼쳐서 보았습니다.

총 3단계를 걸쳐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이 기간에 완벽히 하고자 했기 때문에, 강의 수강기간을 연장할만큼 저는 오래 걸렸고 하루하루 더디게 진도가 나갔는데 이 기간 이후로 못 푸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7월24일에 문제풀이1를 완강했고 이때 동시에 기본서 2회독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때 기본서를 볼때는, 기본서 안에 있는 회로들, 그림들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었죠..

7-9월: 저는 이 기간에 다른 수강생분들이랑은 다른 방향을 갔습니다. 저는 문제풀이2 강의를 골라 들었습니다. 대신에 저는 '단권화+기본서3회독+24~09년도 기출풀기/풀이'를 진행했습니다.

7월8일부터 단권화를 시작했습니다. '3-4월 기본 강의 내용 + 문제풀이1때 필기 + 기본서' 이 3개를 펼쳐놓고 모든 과목을 다 정리했습니다. 3-4월 기본강의 교재와 문제풀이1 교재는 다시 안봐도 될만큼 모든 내용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9월2일에 단권화과정이 끝이 납니다!

단권화를 끝낸 이후에는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c언어/인공지능/자료구조' 문제들만 문제풀이2에서 풀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문풀2에서 '네트워크, DB'문제들을 풀지 않은 이유는 문제풀이1에 있는 문제양이나 내용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이 두 개의 과목은 출제되지 않은 기본적인 개념 영역도 많고 엄청 심화된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골라서 들은 문풀2의 내용들 중에서 단권화에 없었던 내용이 있다면 추가했습니다. 9월30일에 '단권화+문풀2 골라풀고 골라듣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스터디에서는 6월28일부터 정보컴퓨터 임용문제 기출들을 다루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금요일 전에 1개년의 정보컴퓨터 임용문제를 각자 시간재고 풀었습니다. 스터디 전에 각자 채점을 해서 이해가 안되거나 어려운 문제들을 스터디에서 질문 주고받기와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스터디를 마쳤는데도 이해가 안되면 '스티브 선생님 카톡'을 활용했습니다. 24~09학년도까지 풀었습니다.

똑같은 패키지 강의를 들어도 피드백을 주고받아보면 다른 방법과 시각을 제시하는

선생님, 더 깊게 이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의 스터디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10월~시험전날: 이 기간이 진짜 바빴습니다. 시험 전날 직전까지 바쁘게 스케줄을 짰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태해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스티브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1주에 2회분씩 풀었습니다. 스스로 이해해보려 했지만 이해가 안되는 내용은 '강의설명+스터디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정교교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시험직전에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일찍 외워둬도 매일 복습하지 않는다면 머릿에서 사라지는데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직전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10월1일부터 외우기 시작해서 시험전날까지 계속 인출연습했습니다. 물론 ~~25학년도 임용 정교교는 아예 그냥 안외워버릴걸..~~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지만요

<전공>

3-4월	5-6월	7-9월	10-시험전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월 기본강의 ● 기본서 1회독 ● 내용파악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풀이1 ● 기본서 2회독 ● 개념이해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권화 ● 문제풀이2 ● 선택적으로 풀고 듣기 ● 2024학년도~09학년도 ● 기출풀기(스터디) ● 개념정리와 개념정리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티브모의고사 ● 정교교 외우기

2. 교육학

저는 권지수 선생님 개념강의만 들었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심화개념이나 모의고사 강의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뭔가 교육학은 '개념을 다 외우면 논술형이기 때문에 기억에서 끄집어내서 뭐라도 쓰면 점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화개념이나 모의고사를 돈내고 사는게 아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듣지 않았습니다.

교육학도 24년 설연휴 기간에 권지수 기본개념강의를 신청했고 작년 스케줄러를 보니 3월 21일에 개념강의를 완강했습니다.

개념강의를 완강하고나서, 저는 권지수 선생님 교육학 책 두 권도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단권화를 진행했는데 이때 도움을 받은 서브노트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arpe_dm27&logNo=222242369210&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 들어가보시면 파일이 2개 있는데 저는 (배포용)만 사

용했습니다. 해당 pdf를 잘 제본해서 튼튼한 스프링이랑 튼튼한 표지를 입혀줬는데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개념강의를 완강하고 나서, '권지수 선생님 책 내용 + 권지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추가 필기한 내용들'을 해당 서브노트에다가 옮겨적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단권화를 진행했고 3월21일부터 4월24일 교육학 단권화를 끝냈습니다.

10월1일까지 전공공부하다가 머리 식히기 위해서 단권화된 노트들을 펼쳐보며 개념들을 눈에만 익혔지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후폭풍을 10월에 겪었는데요. 10월1일부터 교육학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교육학만 외우고 2시간 전공보고 저녁에 다시 교육학 외우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시험날이었던 11월23일 전까지 무조건 다 외워야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급했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안외우면 안됐기에 시험 직전날까지 힘들게 다 외웠습니다.

10월부터 동시에 인출연습도 했습니다. 기출은 3개년만 풀어보았고 모의고사는 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담인데요.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 굉장히 많이들 교육학 내의 영역들을 골라서 외우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은 교육심리를 안 보시거나 교육사회를 넘기거나'와 같이 교육학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교육학 내용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몇 가지의 내용을 생략한 채 외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4점이상을 통으로 날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육학>

2-3월	3-4월	5-10월	10-시험전날
● 권지수T 개념강의	● 권지수T 교재 + 개념강의 필기들 서브노트에 단권화	● 일주일에 한 번정도 교육학 전체내용 훑기. 외우기X	● 10월1일부터 시험직전날까지 외우기 + 인출연습

3. 멘탈관리..?

이건 남들도 쓰는 영역인 거 같아서 저도 간단하게만 써보자면, 저는 정보컴퓨터과목이 현재 인원도 많이 뽑고 난이도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5급 기술고시처럼 고난이도도 아니고 누군가는 초수합격을 하잖아?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1년 안에 끝낸다'마인드를 계속 상기했습니다.. '평일에 매일 8시간씩 이상했는데 안되면 임용시험을 타하자'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매일 8시간 이상씩 할 수 있었고 하면 될 가능성이 높은 블루오션이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4. 25년 3-4월을 보내고..

정말 교사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원청에 발령을 받았고 학생이 전체 1200-1300명이 되는 대규모 중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경험이 없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말도안된다'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정보컴퓨터 중학교 교사는 굉장히 장점이 많고 행복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4월이 다 가기 전에 단권화한 노트를 스캔해서 뿌릴까 생각중입니다. 그때 필요하시면 파일로 받아서 도움이되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에 2차 준비할 때 너무 아는 거 없어서 맨땅에 헤딩한 경험이 있는데, 올해 여름방학이 되면 [2차관련가이드북]을 제작해볼까합니다.

이처럼 돌아온 주말과 소소한 계획들 그리고 학생들보는 재미로 지내고 있습니다.
화이팅!!